

대학문화와 상상력

이 사 라

(서울産業大 人文學科)

초여름의 교문은 어쩐지 들떠 있기 마련이다. 늦봄의 축제가 남긴 열정의 흔적과 지나간 한 학기의 수업에 관한 자기점검 때문에 학생들이나 교수들은 과장의 수선스러움 속에 놓여진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수들도 무엇으로 정리되든 간에 한 학기분의 노트가 자신의 성실도에 비례해서 남을 것이고, 그런 결산을 이유로 해서 남모르는 잔잔한 기쁨이 찾아들지도 모르고 혹은 나태했던 자신에 대한 패배감이 전신을 누를지도 모른다.

한 코스의 향해가 끝나고 정박하는 심정이 안도라는 이름으로 정리되는 [요즈음의 대학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나의 기우는 무엇일까? 즐거운 청춘들과 마주하고 즐겁게 살아야 할 교수라는 직업이 왜 괴로운 청춘들의 괴로운 상대가 되어 이처럼 우왕좌왕하고 있나? 우리 시대의 학창시절을 풍성하게 부풀려주던 최소한의 낭만조차 소박한 유품처럼 남아보이게 하는 학생들의 의식은 무엇으로 꽂꽂 묶여 있는 것이나 아닌지? 학생들에게 여전한 권위로 설득력 없이 강요만 하는 낡은 수법의 교수 태도를 어떻게 은퇴시켜야 할지? 모른] 대학이 부정당어리인 양 눈덩이 굴리는 사회의 시각을 어떤 노력으로 시정 혹은 수정해야 할지?(나의 경우, 국립대학의 오랜 병폐인 교직원과 교수간의 힘의 대결은 어떤 모양으로 치유될지?)

막연하여 연구실 창으로 향하는 나의 시선에 포착되는 저 싱싱한 숲 속. 바람의 시원한 혼듬으로 숲은 일제히 녹색의 깃발들이 된다. 정답의 평화처럼 그들은 나를 위로한다. 그러나 이 세상살이에 어디 정답이 있으랴? 모범 답안 작성하기에도 우리의 생은 너무도 짧은 것을. 학생들도 교수들도 단 한번의 일회적인 삶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그들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운명공동체인 것을.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이 든다.

사는 일에 완벽한 구도가 어디 있겠나. 완벽한 구도 없이 우리는 무엇을 기준삼아 우리 생의 찬란한 구조물을 이루겠는가? 대학에 몸 담고 있는 교수로서 학생들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일까? 오랜 규제 속에 대학이 그래도 대학다움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율하는 방법을, 의식을 불러 일으키고자 애쓴 어른들과 그를 따르는 젊은이들 때문이 아닐까? 대학은 적어도 가장 전염되지 않은 순수 공간, 순수 시간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

닐까?

전염의 실체도 망각된 전염 사회를 살고 있어서일까? 하품처럼 자연스럽고 무해무독한 전염현상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전염현상이 아니고 의도적인 것일 때에는 우리 생애 치명타를 가하는 법이다. 익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듯이, 근원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게 된 여러 현상들이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 혈관 속으로 침투하고, 우리는 오히려 편한 친구를 맞듯 아무런 거부 의식 없이 우리 몸 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일단 팔호를 칠 필요가 있다. 봄이 되면 꽃들이 세상을 차례로 덮는 것은 자연 그 자체이지만, 우리의 의식의 땅을 뒤덮는 불투명한 정체는 점검해야 할 것이다. 공범 집단 의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 본래적으로 자율하도록 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인데도 우리는 방관할 때가 많다.

그때의 우리 의식의 지배자는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지, 그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고, 생활하는 사회 속에서 누구나 살아가는 까닭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누구나 삶을 가치있는 선반 위에 올려 놓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확실히 민주화가 시작되는 듯이 보인다. 부정은 척결되고 있고 개혁은 강 건너 마을의 이야기가 더 이상 아니다. '90년대 대학사회 전망이 밝아 보인다.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소란스럽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한편에서는 아직도 시위 팽파리가 등등 의식을 혼미케 하지만, 도서관 책의 대출이 나날이 늘고 있다. 지적 욕구가 그동안 영양가 없었던 대학생들의 의식 속에 자생의 원리로 살아나고 있다. 대학사회의 개혁이 제도적인 개혁이나 보완에 의해 시작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대학의 자유와 자율은 제도화에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학문화가 멋지게 자리잡아야 한다. 대학문화는 학문에 대한 교수들의 전지한 자세, 학문에 거는 학생들의 드높은 기대, 학생과 교수가 어우러져 일구어내는 삶의 또 다른 모습, 그것을 지탱해주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 대학의 역사·전통·설립목표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만들어 내는 대학 나름의 독특한 삶의 모습을 일컫는다. 그러나 쉽게 말한다면 대학문화란 교수와 대학생들의 대학에서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대학문화는 어떠한가? 원해서였건 필요에 의해서였건 두 가지의 상반된 문화가 지배해 온 것은 아닐까 싶다. 정치문화와 소비문화가 그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둘이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근원적으로는 모방문화라는 하나의 형태로 집약될 수 있는 건 아닐까? 대학 내에서 어른 흉내내는 정치문화나 어른 흉내내는 소비문화의 실체를 피부로 느끼는 일이 몹시 안타깝다. 대학이 모방문화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일이 어쩐지 참을 수가 없다. 노파심이라면 내가 너무 늙은 티를 낸다 하겠는데, 아직 그래도 캠퍼스 한 켠에서 젊음의 순수를 발견할 때면 그렇게도 기쁜 마음이 일곤하는 걸 생각한다면 나는 아무래도 희망이라는 걸 믿는가 보다.

대학은 젊어야 한다. 학생들도 교수들도 젊어야 한다. 물들지 않는 순수의 노트가 항상 펼쳐져야 한다. 창조를 낳는 상상력의 문화가 대학문화여야 한다. 그래서 사회에 끊임없는 새 물을 대주는 샘으로 존재해야 한다. 순수가 어쩔 수 없이 갖는 당돌한 모험이나, 그 모험이 빛나는 새로운 세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 그 자연스러움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하지 않는 그런 대학문화를 갖고 싶다.

미국의 '60년대 말 대학가에서도 반전대모가 격렬하던 때에 착검을 한 주방위군들이 캠퍼스에 진주하자, 시위학생들이 삼삼오오 그들에게 다가가 총구에 꽃을 꽂으며 'Peace!' 하던 모습. 온통 캠퍼

퍼스 잔디밭에 하얀 페인트를 칠한 작은 십자가를 가지런히 박아 공동묘지를 만들고 월남 전사자 명단을 24시간 밤낮없이 마이크에 대고 읽기를 일주일이나 하던 모습, 그렇게 전개하던 반전예의 절규.

또 독일의 대학에 불 켜진 도서관 옆에 있는 아름다운 밤의 호숫가를 한 명씩 줄지어 피켓 들고 소리없이 돌며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바라던 모습.

이런 이야기들은 일례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적마다 나는 자꾸 조바심이 쳐진다. 우리의 특수한 정황이 그들의 사정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뿌리를 지녔다고 항변의 몸짓을 토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상황적 긴박성, 처절한 불가항력인 폭력의 현실성, 그것 때문에 우리의 대학 주변에 늘상 널려 있어야 하고 깔려 있어야 하는 쇠뿔뿔, 화염병, 분노의 돌덩이들에 우리의 의식은 언제까지 만성적 피로를 느껴야 하나? 우리의 대학문화는 너무도 상상력 빈곤 상태, 상상력 불감증 환자들의 서식처가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조바심 난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창조적 대학문화의 한 부분, 즉 대학생들의 상상력이 분수처럼 솟구쳐 이루는 하나의 작품인 대학문화의 산출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은 실은 기존의, 기성의 대학문화 탓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은 상상력을 수용할 능력이 없어서인지 학문의 경직적 사고를 고수하고 있었고, 교수들은 학생들의 유치한 그러나 싱싱한 엉뚱함을 관용할 능력이 없어서인지 권위적 태도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 중에는 철저하게 출세주의, 개인적인 입신양명의 허상을 좇아 이 악스럽게 현실적인, 소위 딱딱한 아이들이 한몫을 툭툭히 해내고 있었다.

대학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상상력의 무절제한 노출로 말미암아 파괴적이고 비규범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모든 바람직한 공동체가 그렇듯 가장 이상적인 대학문화는 나름대로의 규범과 질서 속에서 저의 생명성을 획득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꼭 깊게 유념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모든 금기는 억제하고 금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금기는 깨어짐을 전제로 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얻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스스로 깨어져 금기로 울타리 지워진 그 영역의 완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든다면,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 갓난아이를 낳았을 때 그 집에는 금줄이 둘러진다. 누구도 함부로 그 집에 드나들 수 없다. 그러나 똑같은 이유로 해서 그 금줄 때문에 친정어머니는 유유히 그 집을 드나든다. 그러한 금줄의 의미는 갓난아이를 위한, 새로운 관계의 자유로운 형성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대학문화가 이러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마련하려면 학생들의 창조 능력, 즉 상상력에 무한한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교수들의 할 일이 이것뿐이겠는가마는 가장 중요한 일이란 가장 서둘러야 하는 일일 때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문화와 상상력에 관한 이런 저런 생각을 대학인으로서 꿈꾸어 보는 이 행복을 누가 꺼트릴 수 있겠는가? ■